

12. 성대낭종의 임상적 및 병리학적 고찰

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 교실¹, 병리학 교실²

정필상¹, 이상준¹, 김명찬¹, 명나혜²

목적: 성대의 점막질환은 후두미세수술 중에 가장 정확히 진단될 수 있다. 특히, 성대낭종의 경우 외래나 병리조직 검사상 성대결절이나 용종 등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. 본 연구에서는 성대낭종의 임상적 특징 및 수술시 진단과 병리학적 진단의 일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: 1995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978예 중 후두미세수술 중에 성대낭종으로 진단된 37예를 대상으로 하여 수술전 진단, 수술중 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고 병리과 전문의가 병리슬라이드를 다시 판독하였다. 전 예에서 CO2 laser를 이용한 후두미세수술이 시행되었으며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1.2개월이었다.

결과: 37예중 30예(81%)에서 수술전에 성대낭종으로 바르게 진단되었다. 1예는 성대결절, 6예는 성대용종으로 잘못 진단되었다. 31예에서 병리결과를 다시 확인하였고 18예(58%)에서 낭종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였다. 이 중 저류낭종이 13예(72%), 유표피낭종이 4예(28%), 1예에서는 낭종으로 생각되는 소견을 보였다. 13예(42%)에서는 낭종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.

결론: 성대낭종의 병리진단의 정확도는 58%로 낮으며 문헌을 통한 저류낭종과 유표피낭종의 빈도를 고려할 때 유표피낭종의 진단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.